

4. 묘의 굴기력(각도)은 SF 8002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Ridomil 다찌가렌, 후치왕 순이었다.

5. 지상부 재생력은 Ridomil, SF8002 처리구가 좋았다.

7. 登熟期 気象条件이 벼알의 脱粒性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농대) 申辰澈<sup>※</sup>, 薩容雄, 鄭昌柱

이양기에 따른 등숙기 기상조건의 차이가 수도의 탈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탈립성이 큰 태백벼와 비탈립성인 진홍을 재료로 40일묘를 5월 11일부터 15일 간격으로 4회 이양하고 출수후 40일 및 55일의 시기에 각각 벼알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작기 및 수확시기의 영향, 그리고 기상요인들과 탈립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벼알의 인장강도는 각처리군 통틀어 진홍의 경우 214-251 g의 변이폭을 보였고 이 범위의 인장강도는 벼의 포장 손실에 무관하나 태백벼의 경우 인장강도는 127.5-204 g의 변이폭을 보였고 이양기 및 수확시기가 탈립성 및 벼의 포장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2. 벼알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태백벼의 경우 수확시기, 이양기 및 이양기와 수확시기와의 상호작용이 모두 컸으며, 특히 이양기가 6월 25일일 경우 현저히 탈립성이 커졌다. 진홍의 경우에는 이양기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수확시기

가 낮을수록 인장강도가 다소 커지는 경향이였다.

3. 기상요인들의 탈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평균, 최저, 최고기온 및 일기온교차가 컸고 특히 수확전 30 일간의 이들의 영향이 컸으며 태백벼의 경우 일사량과 대기습도가 영향하지 않았지만 진홍의 경우에는 수확전 10 일간의 일사량과 수확전 30 일간의 대기습도가 영향하였다.

#### 8. 수도등숙향상및 목도열병 방제효과 시험

(충남도원) 서관석, 김소연, 인무성

감수분열기 전후의 이상저온은 벼의 등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본시험은 1981년 다찌가렌, SZ8028, ABA를 냉온에 가장 약한 출수 1주전에 살포했을때에는 출수기에 처리한것보다 약제효과가 컸으며 또 이시기는 목도열병의 방제적기와 일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찌가렌과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도열병약을 혼용 살포했을때 목도열병과 이삭도열병 그리고 잎도열병의 방제효과와 아울러 등숙이 향상되는 약제를 선발코져 출수후 1주부터 4주까지 1주일 간격으로 잎의 기공저항과, 광합성량, 호흡량, 엽록소함량과 1립중 및 임실비율등을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엽의 기공개도 조사결과 다찌가렌 단용처리구와 다찌가렌+키타진, 다찌가렌+코빈처리구는 대조구보다 기공개도가 가장 컸다.